상진 스님 "매일 참회하며 십선계 실천하길"

인천 용궁사, '십선계 수계법회'
3월 23일 경내 특설무대서 봉행
사부대중 300여 명 법회 동참해
생전예수재 설행…금생 業 참회

인천 영종도=신중일 기자


인천 영종도 용궁사는 3월 23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생전예수재 및 재가불자 십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산목숨을 해치지 마라. 생명을 존중하라. 자비로서 모든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 선남자 선여인들의 계이니 너희들은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전계아사리스님의 계를 설명하며 지킬 것을 묻자, 수계대중은 모두 계를 지니고 지킬 것을 우렁차게 답했다.

인천 영종도 용궁사(주지 능해 스님)는 3월 23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생전예수재 및 재가불자 십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 전계아사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갈마아시리에 용궁사 주지 능해 스님(행정부원장), 교수아사리에 교육원장 재홍 스님이 3사로 자리했으며, 7증사에는 구산 스님, 지허 스님, 동허 스님, 현성 스님, 육화 스님, 성각 스님, 법공 스님이 참여했다.

전계아사리 상진 스님은 경내에 운집한 300여 대중에게 십선계를 조목조목 설파했다. 이날 상진 스님은 대중들에게 △산목숨을 해치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삿된 행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항상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으라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교만을 드러내어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헐뜯지 말라 △탐심을 내고 욕설하지 말라 △진심(嗔心)을 내어 화내지 말라 △불법승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는 10가지 계율 내렸다. 수계자들은 십선계 하나하나 되새기며 지킬 것을 서원했다.

이어 7증사 스님들은 십선계를 지킬 것을 서원한 재가불자들에게 연비의식을 진행하며, 진정한 불자로 거듭날 것을 격려했다.

십선계 설파 직후 상진 스님은 소참법문을 진행했다. 상진 스님은 "옛 조사스님들은 계를 앉아서 받고 일어나서 파하더라도 계를 받으라고 했다"고 상기하며 "모르고 지은 죄는 업이 돼 크게 돌아온다. 계를 받아 지녀,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고 참회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설했다.

〈천수경〉의 '십악참회' 게송을 인용한 스님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이를 금일(今日) 참회해야 한다. 그래야 밝은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진다"면서 "오늘 귀한 자리에서 귀한 법을 수지했으니 수계 동참 대중에게 좋은 일이 더 많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수계법회 이후에는 본격적인 생전예수재 의식이 설행됐다. 용궁사 해조음합창단의 음성공양으로 시작을 알린 생전예수재는 △예수상단 △소청사자 △소청성위 △소청명부 △소청고사, 판관 △마구단 권공 △시식 △봉송 소대로 진행됐다.

용궁사 주지 능해 스님은 "오늘 전생의 죄악업연이 모두 소멸되고 사후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생전예수재와 열 가지 선한 행을 실천하기를 서원하는 십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를 통해 매일 참회하며 스스로 돌아보는 바른 불자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선운사 참당암, 지장참회기도 400일 입재

10년 째 지장참회기도 이어와
법만 스님 "만족, 가장 큰 부자"



"기도는 업을 씻고 삶을 정화하는 수행의 길입니다."

지장참회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고창 선운사 참당암은 3월 23일 4차 지장참회 천일기도 400일 입재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참당암(선원장 법만 스님)은 3월 23일 참당암 대웅전 앞 야외법단에서 4차 지장참회 천일기도 400일 입재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봄기운이 완연한 날씨 속에 봉행된 이날 법회는 전국 각지에서 운집한 불자 7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BTN 불교TV '소나무' 진행자 광우스님의 특별법문도 진행됐다. 법만 스님은 "가장 멋진 회향은 삼독심을 떨쳐버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계정혜 삼학을 잘 닦아 지혜를 증득하는 삶"이라며 "욕심을 버리고 주변을 살피면서 만족이 가장 큰 부자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화강 연등축제 '夜! 光明이다'로 열린다

3월 21일 봉축위원회 출범식



울산 태화강 연등축제가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다. 이에 앞서 봉행위원회 출범식이 3월 21일 울산 만디 3층 교육관에서 열렸다.〈사진〉

'야(夜)! 광명(光明)이다'를 주제로 한 연등축제는 4월 22일 봉축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25일 부처님 이운식, 봉축법요식이 열린다. 26일에는 명상음악회 '붓다 어게인', 청년 무대 '힙한 불교, 힙한 울산'이 마련되며, 27일 폐막식과 제등행렬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대한불교총화종, 제1차 정기총회 성료

법인 설립 후 첫 정기총회



대한불교총화종(총무원장 혜각 스님)이 3월 26일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총본산 실상사에서 제1차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사진〉

총무원장 혜각 스님은 "부처님 법을 수호하고 불자들의 신행 활성화를 위해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종도 스님들이 화합과 자비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교 가르침 실천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 보존 및 생명의 소중함을 포교의 중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통도사 안양암 '북극전' 보물 지정 청신호

국가유산청 지정 추진 대상 선정…학술 가치 높아



경상남도 지정 문화유산인 '양산 통도사 안양암 북극전(北極殿)'〈사진〉이 국가유산청 2025년 보물 지정 추진 대상에 3월 24일 선정됐다. 조선 후기 도교계 칠성 신앙이 불교에 포섭된 대표적 전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승격이 유력하다.

북극전은 1787년(정조 11) 중창된 이후 현재까지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전각으로, 통도사 산내 암자인 안양암의 중심 법당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석가모니불과 가섭·아난존자를 봉안하고 있다.

특히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북극'이라는 명칭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칠성 신앙의 상징성을 담고 있다. 북극전은 현존하는 칠성각 중 가장 큰 규모이자, 일반적인 '각(閣)'이 아닌 '전(殿)'의 명칭을 사용하는 희귀한 사례로, 조선 후기 칠성 신앙의 보편성과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국가유산청은 "북극전은 18세기 말 산내 암자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불전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익공계 공포, 팔작지붕 구조, 화려한 단청 등에서 당대 건축미를 엿볼 수 있고, 중건 시기와 관련한 문헌 기록도 학술 가치를 높인다"고 평가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보물 지정 추진은 북극전의 역사성과 예술성이 충분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앞으로 경남도 문화유산위원회와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공식 지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북극전은 앞으로 경남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보물로 승격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국민매화 '화엄매'…사진으로 春香 담다

제5회 화엄사 홍매화·들매화 사진 콘테스트 개막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는 4월 22일 각황전 옆 홍매화 앞마당에서 '제5회 홍매화·들매화 프로 및 휴대폰 사진 콘테스트' 개회식을 개최했다.〈사진〉

'화엄! 홍매화의 향기를 머금고'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개회식은 화엄사 일주문에서 정광중 취타대의 연주로 시작돼,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각황매 앞으로 행진하며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주지 덕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붉게 핀 각황전의 홍매화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이라며 "이번 축제는 300년 전 계파선사가 심은 홍매화에서 시작된 깊은 인연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덕문 스님은 화엄매 자연유산 등재에 기여한 이원호 박사(국가유산청)와 성기홍 화엄사 홍보기획위원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장길선 구례군의회 의장과 이길용 구례 부군수는 "매화는 추위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며 "고결한 절개를 간직한 화엄매처럼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자"고 말했다.

개막식에서는 현중순 시인이 헌정한 '거룩한 법신 각황매여' 시가 동판으로 제작돼 각황매 앞에 제막됐다. 한편, 이상 기후로 화엄매의 개화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화엄사는 사진 콘테스트 접수 기간을 4월 1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매화 '화엄매'는 300년 전 계파선사가 각황전 옆에 직접 심은 것으로 전해지며,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도 고운 자태와 향기를 간직해왔다. 혹한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매화의 기개와 함께, 국민 모두에게 봄의 희망과 위안을 전하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며 '국민매화'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강진 백련사 일원, 국가 명승 지정행사

3월 19일 경내서 기념행사



강진 백련사(주지 설도 스님)는 3월 19일 경내에서 국가유산청과 강진군의 주관으로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 자연유산 명승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사진〉

명승 제2025-제1호로 지정된 구역은 총 32필지, 면적 448,193㎡에 달한다. 백련사 주지 설도 스님은 "자연과 문화, 유산을 잘 계승하겠다"고 다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안 쌍봉사 봄맞이 자비나눔 실천

60가구에 반찬 전달해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 스님)와 쌍봉사 반찬나눔 봉사단(회장 김진옥)이 봄을 맞아 따뜻한 자비 나눔을 펼쳤다.〈사진〉 3월 22일 진행된 반찬나눔 봉사에서는 보경 스님과 김진옥 회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콩나물 무침, 메추리알 곤약 조림, 봄동 무 겉절이를 준비했다. 24일 열린 '자비의 쌀 나눔' 전달식에서는 쌀 1260kg을 지역사회에 전했다. 보경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이 작은 나눔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곡사 본말사 합동방생 대법회

3월 22일 금강변서



공주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는 3월 22일 금산군 월영산 인근 천내리 금강변에서 '제6교구 본말사 합동 방생 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25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잉어 2500여 마리를 방생하며 자비를 실천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오늘은 정말 뜻깊고 좋은 날이다. 본말사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들께서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깊은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울산 정관암 제9회 '차·시·락의 밤'

3월 22일 경내 특설무대서



울산 정관암(주지 대활 스님)은 3월 22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제9회 '차·시·락의 밤'을 개최했다.〈사진〉

행사는 지역 예술인, 시민, 불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차를 마시고 시를 감상하며 음악을 즐기는 복합문화잔치로, 정관암의 대표적인 봄맞이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지 대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긴 겨울을 지나 만물이 눈을 뜨는 봄처럼, 시민 여러분 모두가 따뜻한 햇살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태고종 충북교구 제2회 용왕대재

3월 23일 중앙탑공원서



태고종 충북교구종무원은 3월 23일 충주 중앙탑공원에서 '도민행복과 안녕을 위한 제2회 합동 용왕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충북교구 원융불교대학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대재는 충북 도민의 안녕과 지역의 평화, 나아가 나라의 안정과 세계의 화합을 기원하기 위한 기도 법회로,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충북교구종무원장 도성 스님은 "기도를 통해 부처님 자비와 지혜가 삶 속에 깃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고성 운흥사, 제295회 영산대재

3월 26일 경내 특설무대서



고성 운흥사(주지 월암 스님)는 3월 26일 제295회 운흥사 영산대재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법회는 1부 영산대재에 이어 법요식이 진행됐다. 이후 산사음악회와 2부 영산대재로 회향했다.

주지 월암 스님은 봉행사에서 "사명대사께서 사랑하신 매화 50여 그루를 도량에 심고, 만개한 매화의 향기로 공양을 올렸다"며 "오늘 영산대재는 호국영령의 극락왕생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며 봉행되었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 동원사 자비의 쌀 1000kg 전달

아동복지시설 14곳에



광주 동구에 위치한 무등산 동원사(주지 지장 스님)가 3월 18일 광주자비신행회(상임이사 김삼옥)와 함께 '지장 스님의 행복나눔 쌀 선물' 전달식을 열고 광주 동구 내 아동복지시설 14곳에 1000kg(20kg, 50포)의 쌀을 기부했다.〈사진〉

주지 지장 스님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께 감사하다"며 "쌀 한 톨 한 톨에 담긴 정성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